

한국과 미국 대학생들의 대인 관계 유형에 따른 식행동 분석

문수재¹ · 김정현¹ · Wendy Jean Harrod², Diane McComber³

¹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²Sociology Department, Iowa State University, U.S.A.

³Food Science Department, Iowa State University, U.S.A.

(1993년 6월 4일 접수)

Analysis of Eating Behavior Based on Social Identity

Soo Jae Moon¹, Jung Hyun Kim¹, Wendy Jean Harrod², Diane McComber³

¹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College of Human Ecology, Yonsei University

²Sociology Department, Iowa State University, U.S.A.

³Food Science Department, Iowa State University, U.S.A.

(Received June 4, 1993)

Abstract

Food is an expression of social identity. The food we eat identifies us as members of a social group, distinguishes us from other groups, and binds us together through a process of self-categorization and social identification. This research extends the theory of collectivism versus individualism as basic dimensions of culture and personality to research on food and identity.

We tested 2 hypotheses among 402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and the U.S. 1) Americans assume relatively individualistic orientation while Koreans relatively collectivistic in orientation. 2) Koreans and Americans differ in their orientation toward food, with Americans assuming an individualistic orientation and Koreans assuming a collectivistic approach. The level of collectivism versus individualism was measured by using Hui's INCOL Scale.

We initially hypothesized that the Americans would be strongly individualistic and Koreans strongly collectivistic, however our results did not prove this. The two groups showed collectivistic social identity with the Americans being a bit more collectivistic, so little support was found. In order to test the second hypothesis, we devised a new set of questions based on a idea by Hui and Fischer. It was found that this hypothesis was strongly supported.

In conclusion, it is difficult to find overall differences in collectivism versus individualism between the two groups. But in the area of attitude toward food, we found clear differences. For Koreans, food is an expression of collectivistic identity, whereas Americans assume a more individualistic approach.

I. 서 론

교통의 신속함과 효율적인 수송 방법으로 식품의 수·출입 및 인구의 상호 이동 등으로 국가간의 교류가 증가하고, 상호 의존성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의 식생활도 전통적인 식생활로 정체되어 있지 않고 급속도로 변모하여 국제화 시대에 돌입하게 되었다. 세계는 점차로 다문화적인 환경으로 변화 되어지고 있어 각국의

학문에서는 비교 문화 연구를 통해 민족들간의 동질성과 이질성에 대해 규명하고 자국 문화의 전통성에 대하여 재조명하고 있다. 각각의 사회가 지니고 있는 기본적인 차이는 그들 나름대로의 문화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간의 차이는 식생활, 경제 수준, 가족제도, 동질성등의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기 때문에 각 분야에서 독자성있는 비교 연구가 요청되고 있다.

식생활 행동은 사회 정체감(social identity)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다¹⁾. 우리가 섭취하는 식품은 우리를 사회의 한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규명해주며, 한 집단과 다른 집단을 구별함과 동시에 자의식(self awareness)과 사회 정체감화(social identification)를 통해 우리를 하나로 연결시켜 주기도 한다. 그 예로는 아프리카-미국 요리법(African-American cuisine)인 soul food가 있다. 이는 아프리카인이 노예로 미국으로 끌려와 새로운 미국 식문화를 접하면서도 모국의 식문화를 노예 생활속에서 지켜온 것이다. 구전으로 내려오면서 흑인들의 정신력을 보강해주며 내가 누구인가를 자각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유대인들에 있어서 식사에 관한 엄격한 법규는 민족 구성원들에게 힘을 주는 역할을 하고 그들 자신과 그들의 동족사이를 강하게 엮어주는 매개체가 되고 있다²⁾. 따라서 식품이라고 여겨지는 것, 맛이 있는 것, 싫어하는 음식등은 각각의 문화마다 다르고, 이는 자신이 속한 사회 집단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므로 타집단과 자신의 집단을 잘 구별하게 된다³⁾.

그러므로 사회 정체감의 특성이 집단마다 다르다면, 식생활을 통해 나타나는 사회정체감의 표현도 집단마다 다를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비교문화를 연구하는 많은 사회 과학자들과 정신 심리 학자들은 기본적인 사회적 차이를 특징화 하기 위한 시도로서 문화적 집단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여러가지 방법을 이용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개인주의(Individualism)와 집단주의(Collectivism)이론에 초점을 두고 있다⁴⁾.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정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집단주의(collectivism)는 자아(self)를 집단의 일부로써 파악하고(집단적 자아), 집단의 목표를 개인의 목표에 선행시키며, 집단의 원활한 결속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 집단에 강한 정서적 애착을 갖는것이다. 한편, 개인주의(Individualism)는 자아(self)를 집단과는 별개의 독특한 단위로써(개인적 자아) 자각하고, 개인의 목표 추구가 집단에 누를 끼치더라도 개인의 목표를 강조하며, 집단의 결속에 관심이 적고, 정서적으로도 거리감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한다⁴⁷⁾. 따라서 폭넓은 사회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이론에 근거하여 문화권의 차이가 식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를 연구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와 목적을 두고 있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의 가설 설정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의 2가지로 설정하였다.

첫째, 한국과 미국은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정도가 서로 다를 것이다. 사회 전반적인 태도 즉, 성 역할과

민족에 대한 태도는 한국인이 미국인에 비해 집단주의적일 것이다.

둘째, 문화권의 차이를 나타내는 표현 수단이 되는 식품에 대한 태도 및 행동에도 한국인과 미국인이 문화적인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2. 연구 대상자 설정 및 연구 방법

집단주의-개인주의 이론에 따르면⁵⁾, 개인주의 성향이 낮을수록 후진국의 제반 특성(낮은 경제 성장률, 높은 인구 증가율)을 지니고 있어, 동양·아프리카·남부 유럽 문화권이 집단주의적인 경향을 지니고 있으며 북미·북유럽 문화권이 개인주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동양권내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과 북미 유럽권인 미국을 본 연구의 연구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한국은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룩하여 동아시아 문화를 대표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은 그들의 청교도 의식이 생활의 가치관을 적립하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한국의 중요한 수·출입의 상대국이다. 최근에 이르러 한국인 이민수가 점차 늘어나고 많은 한국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곳으로 특징 지을 수 있다⁶⁾.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두 집단에 속한 연구 대상자들에 관한 사항을 Table 1에 제시하였다. 한국의 경우는 Y 대학교와 U 대학교에 재학중인 남학생 130명과 여학생 141명을 선정하였으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20세 이었다. 미국의 경우는 I 대학에 재학중인 남학생 30명과 여학생 101명으로 평균 연령은 21세이었던.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 방법은 2종류의 설문지로 구성되었다.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를 측정하는 척도는 심리학과와 사회학과 차원에서 많이 개발되어 오고 있는데, 대부분의 도구가 개인을 대상으로 수행되어지고 있었다. 본 연구는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우이므로 여러가지의 집단에 속해 있는 개인의 느낌이나 감정을 측정하는 Hui's INCOL scale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집단내의 전반적인 문화적인 경향이 집단주의적인지 개인주의적인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배우자,

Table 1. Sex ratio and average age of total subjects

	Korea (Y & U Univ.)	U.S.A. (I Univ)
Male	130	30
Female	141	101
Ave · age	20	21

종족(친척), 부모, 친구, 이웃, 동료라는 6개의 내집단을 종류·영역별로 구분하여 규명하고 있다. 이 도구는 Hui에 의해 홍콩과 미국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pre-test)를 실시하여 수정·보완되어 개발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⁶⁾.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도구의 사용에 앞서 Cronbach's coefficient alpha¹⁰⁾를 사용하여 신뢰도 검정을 하였다. 이 설문 내용을 한국 대학생에게 실시할 때에는 한글로 번역하였다. 식생활 행동으로 표출되는 문화적인 차이의 측정은 Hui's INCOL scale을 model로 하여 식품에 대한 태도 및 식생활 행동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본 연구자가 개발하였다.

이러한 측정 방법을 사용하여 얻어낸 자료를 SAS Package를 이용하여 ANOVA와 X₂-test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¹⁰⁾.

III. 연구 결과

1. 측정도구의 점수화와 신뢰도 측정 결과

식생활 행동을 측정하는 문항 중 1문항 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5점 응답 척도(-2, -1, 0, +1, +2)를 이용하였다. 0점보다 점수가 낮으면 개인주의적인 자아 반응을 나타낸 것이며, 0점보다 높으면 집

단주의적인 자아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Table 2는 INCOL scale과 Food scale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한 Cronbach's coefficient alpha¹⁰⁾을 구한 것이다. 6개의 내집단 중 배우자와 동료에 대한 alpha값이 다른 것에 비해 낮게 나온 것은 연구 대상자들이 모두 20대의 미혼 대학생이므로 이라는 특수한 성격 때문에 배우자 및 동료의식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데 기인한다.

2. 국가와 성이 두 집단 사회에 미치는 영향

나라와 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 본 결과를 Table 3에 요약 정리하였다. 배우자, 부모, 종족, 친구, 동료는 두 집단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이웃에 대한 태도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배우자와 친구에 대해서는 한국의 대학생들이 미국의 대학생들에 비해 더 집단주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었으며, 친척, 부모, 동료에 대해서는 미국의 대학생들이 더 집단주의적인 자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INCOL 평균(GCI)으로 보면, 한국과 미국 대학생들 모두 집단주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국의 대학생들이 더욱 집단주의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집단주의적인 정도에 있어서 큰 차이를 예상했던 본 연구의 첫번째 가설은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최근에 연구된 다른 연구^{6,7)}에서도 미국의 대학생들이 홍콩과 중국의 대학생들에 비해 집단주의적인 성향이 좀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됨을 볼 수 있었다. 이는 한국 문화를 내재적인 우수성으로, 한국인의 태도를 민족주의와 자민족주의로 특징지어 한국은 집단주의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던 과거의 선행연구와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7,9)}.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젊은 세대인 대학

Table 2. Cronbach's coefficient alpha-value

		Korea	U.S.A
Incol scale	Spose	0.33	0.42
	Parent	0.59	0.71
	Kin	0.62	0.51
	Neighbor	0.66	0.71
	Friend	0.50	0.39
	Co-worker	0.40	0.45

Table 3. Mean Values And F Statistics For INCOL Scales By Country And Gender

	Korea		America		F-value		
	Male	Female	Male	Female	Country	Gender	
Incol scale	Spose	-0.13	-0.16	-0.29	-0.26	4.8*	0.1
	Parent	+0.36	+0.46	+0.69	+0.82	69.6 ⁺⁺	8.6 ^{**}
	Kin	+0.12	-0.01	+0.52	+0.49	62.6 ⁺⁺	1.9
	Neighbor	+0.20	+0.23	+0.31	+0.19	0.4	0.5
	Friend	+0.41	+0.34	+0.18	+0.31	8.3 ^{**}	0.6
	Co-worker	+0.18	+0.12	+0.21	+0.26	4.1*	0.0
Incole Ave.		+0.19	+0.16	+0.27	+0.30	15.2 ⁺⁺	0.0

* p<0.05 ** p<0.01 ++ p<0.001

생들의 경우 이러한 전반적인 집단주의적 성향은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대화에 대한 추구가 삶들과의 관계에 있어 중요성이 상실되어 기성 세대가 가지고 있는 집단주의적 성향에서 점차로 개인주의적 성향으로 전환되어지고 있고, 미국의 경우는 그 반대의 현상으로 되어감을 시사해주고 있다⁷⁾.

3. 국가와 성역할이 식생활 행동에 미치는 영향

1) 국가에 따른 식생활 행동의 차이

식품에 대한 태도 및 행동은 사회 전반적인 태도와는 달리 한 세대에 일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세대를 거쳐 서서히 정착되는 것이므로 변화시키기 어렵다고 알려지고 있다. Table 4(Table 4-1 부터 Table 4-4)는 두 집단간의 식생활 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두 집단 모두 집단주의적 성향을 나타내어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은 문항은 다음의 3가지로 나타났다(Table 4-1). 하루에 적어도 한끼의 식사는 가족 모두가 공유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부모님과 같은 음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음식 중 가장 큰 조각을 집는 것을 삼가해야 한다는 것등이다. 따라서 가족이라는 내집단을 중요시 여기며, 개인을 가족이라는 내집단의 종속적인 존재로서 파악하려는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주로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중요시되는 집안 화목이라는 덕목은 거의 모든 집단에서 보이고 있는 공통 요인으로, 이러한 결과로 한 집단은

완전한 집단주의 또는 개인주의일 수가 없으며 어느 정도까지는 복합적인것을 시사해 준다.

한편, 두 집단 모두 집단주의적 성향을 나타내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 기대한 바와는 다르게 미국의 대학생인 경우 한국에 비해 더욱 그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문항은 다음의 2문항으로 나타났다(Table 4-2). 친구들과 같은 종류의 음식을 선호하는 경향은 미국과 한국의 대학생 모두 집단주의적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한국에 비해 집단주의적 경향이 우세하여 두 집단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Triandis⁸⁾은 집단주의 문화권의 개인들은 친구를 만드는 사교술이 미숙하지만 그 친구 관계란 많은 부담을 서로 지게되는 장기적인 우정이며 반면에 개인주의 문화권의 개인들은 친구를 만드는 사교술이 뛰어나지만 그 친구들은 의무 부담을 별로 수반하지 않는 친밀성이 부족한 단기적인 관계로 특징지어진다고 하였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예상한 바와 같이 한국의 대학생들은 집단주의적으로, 미국의 대학생들은 개인주의적 경향을 강력히 나타내어,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지만 국가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문항들이다(Table 4-3). 즉, 자신의 나라 음식을 더 선호하고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한국의 대학생들의 경우 더 뚜렷하였다. 또한 한국의 대학생들은 다른 나라의 음식이 유행하고 있다는 것을 문제시 여기며, 전통 음식은 가족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은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국

Table 4-1. Item Analysis of the Food Scale Questions : Both groups are collectivistic orientation.

Item	Korea		America		ANOVA(P-value)	
	Male	Female	Male	Female	Country	Gender
1. 하루에 적어도 한끼 정도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	+1.18	+1.28	+1.3	+1.25	N.S.	N.S.
2. 부모님과 같은 음식을 선호	+0.04	+0.07	+0.23	+0.14	N.S.	N.S.
3.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는 접시에서 제일 큰 조각의 음식을 가져다 먹는다	+0.37	+0.27	+0.30	+0.60	N.S.	N.S.

Table 4-2. Item Analysis of the Food Scale Questions : Americans are a little bit more collectivistic orientation.

Item	Korea		America		ANOVA(P-value)	
	Male	Female	Male	Female	Country	Gender
1. 친구들과 같은 종류의 음식을 좋아한다.	+0.04	+0.21	+0.53	+0.58	.0001	N.S.
2. 시장을 갈때 아이들과 같이 가서 좋아하는 식품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0.55	-0.68	-0.37	-0.43	.05	N.S.

Table 4-3. Item Analysis of the Food Scale Questions : Koreans are more collectivistic orientation than Americans

Item	Korea		America		ANOVA(P-value)	
	Male	Female	Male	Female	Country	Gender
1. 딸은 어머니에게 음식 조리법을 배우는 것은 당연하고 합리적.	+0.91	+0.66	-0.10	-0.11	.0001	N.S.
2. 주부가 요리를 잘 한다면, 그것은 그집의 영광이다.	+0.59	+0.36	-0.30	-0.48	.0001	N.S.
3. 우리나라의 음식이 다른 나라의 음식보다 더 입맛에 맞다고 생각한다.	+0.98	+0.85	-0.10	-0.26	.0001	N.S.
4. 우리나라 음식이 다른나라의 음식보다 우리에게 더욱 건강식이라고 생각한다.	+0.46	+0.41	-0.73	-0.67	.0001	N.S.
5. 오늘날 다른 나라의 음식이 우리의 사회에서 유행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0.10	-0.02	-0.87	-0.94	.0001	N.S.
6. 전통적인 음식은 가족 모두가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0.44	+0.45	-0.40	-0.77	.0001	N.S.
7.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싫어한다면 그 음식을 상에 올려놓지 말아야 한다.	-0.25	+0.01	-0.67	-0.58	.0001	N.S.

인은 집안에서 아내가 요리를 훌륭하게 한다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며 딸들도 어머니 만큼은 해야 한다고 기대하고 믿고 있었으나, 미국의 대학생들은 이러한 관점에 있어서는 크게 가치를 두고 있지 않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동·서간의 문화 차이로도 인식이 되고 있는데,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집단보다 개인이 인식의 초점이며 개인차가 두드러지게 부각되며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개인보다는 집단이 인식의 초점이 되어 개인차가 부각되지 않는 현상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2) 성역할에 따른 식생활 행동의 차이

식품에 대한 태도 및 식행동과 연관된 고정화된 성역할은 가장 강력하고 개인적인 반응이다. 한국 농촌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11,13)}, 전통적으로 부인은 그 스스로 남편과 가족에 대해 집단적으로 동질화되려고 하며, 가능한 그녀들 자신들의 내재적인 자아를 음식과 관련된 성역할로 규정지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의 여대생들은 집안 사람들의 도움 없이 모든 식생활에 관한 행동을 하는 위치에 있는 어머니들의 태도 및 생각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었으며, 아들이나 아버지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다는 생각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남학생들의 경우 아들이나

Table 4-4. Item Analysis of the Food Scale Questions : Sex difference between 2 groups.

Item	ANOVA(P-value)	
	Country	Gender
1. 어머니가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혼자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당연하다	.0001	.0001
2. 남자 아이에게는 음식 준비를 돕는 것에 대한 기대를 해서는 안된다.	.0001	.0001
3. 어머니가 매우 바쁜날에는 아버지가 음식 준비를 해야한다.	.0001	.0001
4. 시판되고 있는 “조리된 음식”은 맛이 없고 정성이 없다.	.05	.0001
5. 현모양처는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음식장만에 소요해야 한다.	.0001	.0001

아버지가 음식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을 어느 정도 당연시 여기고 있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한국인과 남성들은 식생활 행동에 있어서 성의 특수한 역할에 대해서 개

Table 5. Serving order choices by country

Serving order	Korean % (N=213)	American % (N=112)
Father, Mother, Son, Daughter	47%	12%
Father, Son, Daughter, Mother	20%	23%
Father, Mother, Daughter, Son	18%	12%
Father, Son, Mother, Daughter	7%	1%
Father, Daughter, Son, Mother	3%	4%
Any of 19 remaining patterns	5%	48%
Total	100%	100%

인주의적인 태도를 보였다(Table 4-4).

전형적인 가족의 저녁 식사 시 각자의 음식을 제공 받을 때 누가 처음이고, 두번째인지 그 순서에 대해 알아 보았다(Table 5). 이 설문 의의는 집단주의에서는 개인을 내집단에 종속적인 존재로써 파악하므로 개인은 내집단과 결부된 여러가지의 의무를 지니며 요구되는 규범과 행위의 일치여부로 개인을 평가한다. 따라서 집단주의적인 문화권에서는 식사 시 음식을 제공 받는 순서가 획일화되어 있으므로, 이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등 4명의 순서를 정하라는 설문은 24가지의 다른 제공 순서를 가능하게 한다. 한국과 미국 대학생들은 24가지의 가능한 반응에 있어 그들의 선택이 유의적으로 달랐다($p < 0.000$). 한국의 대학생들은 미국의 학생들에 비해 그들의 선택이 한 방향으로 집중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7%가 아버지-어머니-아들-딸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의 대학생들의 경우는 오직 12%만이 이런 특별한 음식 제공 순서를 선택하였다. 또한 한국대학생 응답자들 중에서 95%가 음식을 제공 시 아버지를 가장 먼저 선택하는 반면, 미국의 대학생들은 52%만이 아버지를 최우선 순위로 정하고 있었다. 또한 특이할 만한 점은 미국 대학생들의 22%가 자녀들이 부모님들보다 먼저 음식을 제공 받고 있었지만, 한국의 대학생들에게서는 이런 현상은 거의 찾아 볼 수가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로 본 연구에서 세운 두번째 가설인 식생활 문화에 관한 행동은 한국인은 집단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일면을 증명하여 주고 있으며, 미국인 대학생들은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음이 지지 되었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의 가치 체계가 아직도 유교적 사상에 준해 형성되어 있으므로 이것이 식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

IV. 결 론

한국과 미국은 사회 전반적인 태도에 있어서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적인 문화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첫번째 가설은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한국과 미국의 대학생들은 전체적으로 집단주의적인 자아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본 연구가 젊은 세대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들 자신의 문화에 적응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상태가 아닐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세운 식품에 대한 태도 및 행동에 관한 두번째 가설은 강력한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에 대한 집단주의적인 성향은 현대 한국 사회에 남아있는 전통적인 집단주의적인 문화의 한 측면이 된다. 한국의 전통적인 요리법과 식생활 문화는 한국 사회 내에 내재되어 있는 결속과 민족주의적인 자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인에 있어서 식사 시간은 그 집단을 정의하고 특징화하는 기회가 되며 또한 이는 사회적 응집력의 한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내로 이민을 한 사람들이거나 유학을 간 한국인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두집단 모두 식생활 형태는 개인이 아닌 가족 전체가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 또한, 과거의 행동이나 습관이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지만, 본 연구 결과에서도 보듯이 과거의 생활 습관이나 행동이 변하고 난 뒤에도 계속적으로 남아있고 변화되기 힘든 것은 식생활과 관련된 행동임을 알 수 있다. 식행동은 단시간내에 변화하기가 어려운데, 이는 몇세대를 걸쳐 형성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빠른 경제 성장 및 현대화라는 도약은 급진적인 문화적 변화에 대해 적응하는 것에 어떤 어려움을 경험해 왔음을 다시 한번 시사해 준다.

본 연구의 결과 및 결론을 마치며 몇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이번 연구는 대학생이라는 하나의 특수한 집단을 대상으로 행해졌기에, 사회 전체를 대표하기에는 약간의 오차가 존재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가 비교 문화 연구에 중점을 두어 진행되었지만, 성별에 따른 차이에 그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연령에 따른 차이를 연구·분석하는것도 의미가 클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 뒤이어 연령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전국민의 식행동 및 식품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여 한국인의 식생활 태도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과 올바른 식생활을 위한 방향 제시에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참고문헌

1. 문수재 역 : 영양 생리학, 신광 출판사.
2. Tannahill R. : Food In History, 2nd Edition, Crown

- Publishers, Inc. New York, 1988.
3. Telma B. S. : You Eat What You Are, The Canadian Publisher, 1979.
 4. Hui, C. H. : Measurement of individualism-collectivism, *J. of Res. an Person.* **22**, 17-36, 1988.
 5. 한규석 : 집단주의-개인주의 이론의 현황과 그 전망, *Kor. J. of Psycho.* **10(1)**: 1-19, 1991.
 6. Triandis, H. C. :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Approaches in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 Psychocultural perspective from East and West, July, 9-13, Seoul, Korea. 1990.
 7. Triandis, H. C.,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 Cross-cultural perspective on self-ingroup relationships, *J. of Person. and Soci. Psycho.* **54**, 323-338, 1988.
 8. 임정빈 : 농촌 가정생활 만족에 관한 연구 : 한국과 미국 농촌 가정을 대상으로, *대한가정학회지*, **28(4)**: 135, 1990.
 9. 백문화, 조병화 : 부모 및 조모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 동거와 비동거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0(2)**: 219, 1992.
 10. Norusis. M. J. SPSS/PC⁺, SPSS Inc.
 11. 국민 식생활 의식구조 조사 보고서, 식생활개선 범국민운동본부, 1992.
 12. 문수재, 문숙재, 윤정숙, 이영 : 농가 생활연구, 신광출판사, 1989.
 13. 이진순, 유영상 : 농촌주부의 영양지식, 식생활 행동 및 영양섭취 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0(4)**: 63, 1992.
 14. 문수재, 양일선, 이민준 : 세계 각국의 식품 소비구조, 영양소 섭취 수준 및 영양 문제의 변화 양상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식문화학회지*, **6(2)**: 199, 1991.
 15. 임정빈, 서병숙, 이효지, 장유경 : 라이프 스타일과 식생활 양식, *대한가정학회지*, **28(3)**: 34, 1990.